# KIA '아픈 손가락' 정해영·조상우, 어쩌나…

'와르르' 무너진 뒷문…살얼음판 순위싸움 '발목'

## '추락과 도약' 사이, 불펜진 운용 잇단 자충수 역전패 악몽
## 블론세이브 리그 2위…집중력 난조 수비실책도 리그 3위

지난 1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경기 9회말 마무리로 등판한 정해영과 조상우.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전히 마무리와 수비 불안이다. 시즌 내내 반복된 약점으로 순위 싸움에서도 발목을 잡고 있다. 단순히 몇 경기 패배가 아니라, 팀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다.

최근 두산과의 2연전은 이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15일 잠실 경기에서 KIA는 한 점 앞선 9회말 2사에서 포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11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무너졌다. 하루 뒤인 16일에는 9회초 위즈덤의 동점포와 김태군의 적시타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9회말 마무리 정해영과 조상우가 잇달아 흔들리며 다시 끝내기를 허용했다.

두 경기 모두, 막판 집중력 저하와 뒷문 난조가 겹치며 패배로 직결됐다.

주중 삼성 원정 3연전 스윕으로 끌어올린 기세도 잠실에서 멈췄다.

순위표는 KIA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여준다. 53승 52패 4무(승률 0.505)로 5위에 머물러 있다.

3위 롯데와는 2경기 차, 6위 kt·7위 NC와는 불과 1경기 차다. 언제든 상위권 도약이 가능하지만, 동시에 추락도 순식간인 살얼음판 경쟁이다.

문제는, 시즌 초부터 불거진 불펜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팀 불펜 ERA는 5.00으로 리그 9위, WHIP(1.58)과 피안타율(0.277) 역시 하위권이다.

6월 한때의 반등세는 흔적조차 없다. 구단은 최근 투수 코치를 교체하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마무리의 부진이 뚜렷하다.

정해영은 26세이브로 리그 3위지만 블론세이브도 3위, 8월 들어 ERA 7.71, 피안타율 0.300으로 흔들리고 있다.

전반기 24홀드를 기록한 '셋업맨' 조상우 역시 후반기 ERA 10.13, 피안타율 0.440으로 급격히 부진하다.

올 시즌 두 선수의 블론세이브만 9개, 팀 전체는 17개로 리그 두 번째로 많다. 승리를 지켜야 할 마지막 3아웃이 KIA에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수비도 문제다. KIA는 올 시즌 94개의 실책으로 리그 세 번째로 많다. 시즌 전체에 걸쳐 이어진 잦은 실책은 팀 리듬을 흔들고, 순위 싸움에서 안정감을 잃게 만든다.

15일 두산전에서 나온 송구 실책처럼, 한 번의 집중력 저하가 승부 전체를 뒤집는 장면은 더 뼈아프다. 반면 리그 상위권 팀인 LG와 한화가 60개대 실책으로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타선은 차츰 응집력을 되찾고 있지만, 결국 승부는 9회 막판 싸움에서 갈린다.

상위권을 노리는 팀이 반드시 갖춰야 할 마지막 안정감이 KIA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상위권은 눈앞이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삼성 원정 스윕의 기세도 마무리와 수비 취약 앞에 빛이 바랬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순위 경쟁에서 밀려나는 건 피할 수 없다. KIA 벤치의 빠른 대응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주홍철 기자

## 함평골프고 김채은 KLPGA 준회원 합격

함평골프고 김채은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준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전남도교육청은 17일 "김채은이 올해 테스트 라운딩 등을 거쳐 순위권에 들어 준회원 자격 검증을 지난달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김채은이 지난 2월 미국 앨라배마주에 위치한 트로이대학교에서 진행된 도교육청 국제교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것이 이번 자격 획득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로이대학교 캠퍼스에는 전남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설립된 'K-에듀센터'가 운영 중이다.

김채은을 비롯한 함평골프고 선수들은 연수 기간 동안 ▲트로이대 교수진과의 심층 토론 ▲현지 선수 및 코치들과의 교류 ▲스포츠 문화 체험 ▲골프 실전 라운딩 등을 통해 경기 전략과 심리적 준비 태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김채은은 "K-에듀센터에서의 경험과 트로이대에서 만난 교수님, 선수들의 조언이 시야를 넓혀줬다"며 "기술뿐 아니라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가 달라졌고, 그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욱 기자

손흥민, LAFC 선발 데뷔전서 쐐기골 도움…MLS 첫 공격포인트

로스앤젤레스(LA) FC의 손흥민이 1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폭스버러의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의 메이저리그사커(MLS) 경기에서 후반 자신의 어시스트로 쐐기골을 터뜨린 마티와 슈아니에르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손흥민은 미국 무대 진출 후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이 경기에서 미국 무대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다. 또 미국 무대 두 경기만에 경기 최우수선수에도 선정됐다. /AFP=연합뉴스

## 서구청 펜싱 김상진·최은숙 대통령배 에페 개인전 동반 우승

광주 서구청 김상진과 최은숙이 제65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남·여 에페개인전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김상진은 지난 15일 강원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손민성(화성시청)을 15-13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김상진은 앞서 64강전서 김찬우(익산시청)를 15-10, 32강전서 윤영도(서울체고)를 15-14, 16강전서 송제헌(대전대)을 15-10, 8강전서 남연호(한국체대)를 14-13, 4강전서 박상영(울산시청)을 기권승으로 연파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은숙도 같은날 열린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송세라(부산시청)를 15-13으로 물리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최은숙은 앞서 64강전 이예빈(경남펜싱협회)을 15-8, 32강전서 김소연(한국체대)을 15-9, 16강전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5-7, 8강전서 이혜인(울산시청)을 15-14, 4강전서 양승혜(한국체대)를 15-13으로 각각 이기고 결승에 올랐다.

제65회 대통령배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에페 개인전 동반우승을 차지한 김상진과 최은숙. 〈서구청 제공〉

광주 서구청 펜싱팀의 전국대회 남·여 개인전 동반 우승은 창단 이후 처음이다.

/박희중 기자

## "행복나눔교실로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광주시체육회 행복나눔 골프교실 수료식 개최…연말까지 배구, 빙상 등 11개 종목 운영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2025 행복나눔 골프교실 수료식을 개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골프교실은 올해부터 대한골프협회와도 연계해 골프 강습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골프협회에서는 사업에 운영되는 학생용 골프 클럽 등 각종 장비를 지원하며 참가 학생들의 호응도도 제고했다.

지난 7월 말부터 GPC생활체육광주센터(실내골프장)에서 진행한 행복나눔골프교실에는 총 30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골프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골프 프로그램 기간 중 가족과 함께하는 게임데이를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호평을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행복나눔스포츠교실을 통해 스포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쓸 것"이라며 "우수한 강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종목별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배워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가 최근 GPC생활체육센터에서 행복나눔교실 사업 골프교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진행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는 오는 12월까지 2025 행복나눔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골프, 배구, 빙상, 스쿼시 등 총 11개 종목 13개 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들은 매주 1-3회 강습에 참여하게 된다. /박희중 기자

##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선수반 국제오픈태권도 유소년부 단체전 동반 우승

### 금 2, 은 1, 동 2 획득 '눈부신 성과'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이 제10회 MBC 국제오픈태권도대회에서 유소년부 3인조 단체전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사진)

영암세한공공스포츠클럽 태권도 전문선수반은 최근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자 유소년 3인조에 여선우·송주혁·박주환과 여자 카뎃 3인조 안영서·박인희·차아연이 단체전 우승을 합작한 데 이어 개인전에서는 안영서(여자 카뎃A -43kg)가 은메달을 차지했고, 차수연(여자 유소년 -34kg)과 여선우(남자 유소년 -36kg)가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한편, MBC 국제오픈태권도대회는 국내외 유망 선수들이 참가해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국제대회로 선수들에게 실전 경험과 경쟁력 향상의 장으로 주목 받고 있다. /박희중 기자